

“금단의 선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첫 걸음”

■ 외신 노대통령 남북 긴급 E전 군사분계선 넘는 순간 등 생중계... 회담성과 전망은 낙관·회의 엇갈려

외신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방북에 앞서 대국민 인사를 하는 장면부터 발빠르게 보도하는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일제히 긴급기사로 다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남북군사분계선을 통과한 사실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한 것과 관련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회의론이 엇갈리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CNN 방송은 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밝힌 대국민 인사부터 신속하게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통신사 가운데 AP와 일본의 교도(共同), 중국의 신화(新華)는 오전 8시경 노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를 출발한 사실부터 긴급기사로 타전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를 떠난 노 대통령이 1시간 여 만에 군사분계선(MDL)에 도착하자 CNN은 또 다시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CNN은 노 대통령이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소감을 발표하는 장면과 도보로 MDL을 넘는 장면까지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도보로 북한을 방문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한 듯 MDL 앞에 선 노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모습을 방송했다.

AFP 통신과 교도통신,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주요 통신사들도 노 대통령이 도보로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평양에 도착,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북측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병전의 산물인 MDL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한 노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김 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공식 환영행사가 열린 평양 4·25 문화회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주요 외신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는 등 긴급기사를 쏟아냈다.

AP와 AFP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이날 노

대통령의 북측 방문을 외교적으로 길이 남을 사건으로 보도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신문들은 북한이 원수와 무역을 간절히 원하는 시기에 회담이 이뤄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상당수 외신들은 단정적인 보도는 하지 않았으나 이번 회담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은 물론 향후 교류와 군축과 같은 평화 방안도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레 전망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내 냉소주의가 엄중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축, 북한 인권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은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강경한 군부를 설득해야 하는 난관을 안고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연합뉴스

■ 노대통령 타고 평양간 '벤츠 S600'는

특수소재 방탄차... 수류탄에도 견디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타고 평양으로 향한 전용차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S600 모델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내내 이 차량을 이용한다. 이 차량은 수류탄을 비롯한 각종 군사용 무기나 폭발물 등 위협물질로부터 탑승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벤츠 S600 가드의 방탄관은 군용 소화장치로 고압 분사시에도 전혀 지장 없이 문턱 1개 무게 100kg, 특수 용리: 울리카바네이트를 용접 강화한 4.5cm의 방탄 유리, 화재 발생시에도 유리 형태 유지 외부 폭발시 파편도 적 내부 침입 불가



특수 소재 방탄차... 수류탄에도 견디

벤츠 S600 가드의 방탄관은 군용 소화장치로 고압 분사시에도 전혀 지장 없이 문턱 1개 무게 100kg, 특수 용리: 울리카바네이트를 용접 강화한 4.5cm의 방탄 유리, 화재 발생시에도 유리 형태 유지 외부 폭발시 파편도 적 내부 침입 불가

북측이 노 대통령의 전용차량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국가간 의전관례상 상당히 파격적이다. 통상 어느 국가이든 해외에 나가면 국가원수에 대한 차량 경호는 상대국에 일임하는 것이 의전상 관례다. 게다가 대통령 전용차량에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는 경호원을 남측 요원들로 배치토록 북측이 허용한 것은 '파격' 중의 파격이라는 평가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여수 엑스포 유치 청신호되나

남북 협력방안 거론 가능성 높아 北 BIE 가입엔 든든한 '원군' 될듯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의제에 오를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기대는 최근 2012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북한의 세계박람회기구(BIE) 가입과 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정상 회담에서 논의됐으면 한다는 대정부 건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20일 오현석 여수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마지막 남은 분단국의 평화와 화해 무드 조성에 계기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각종 심포지엄에서도 여수박람회 개최시 북한관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북한을 향한 관심은 계속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박람회 유치를 위한 남북 공동협력 방안이 제시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를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는 여수시민들은 2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엑스포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수박람회 유치 문제와 이에 대한 남북 협력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수시와 시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세계박람회기구(BIE)회원국 가입에 대한 제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북한의 협조가 있을 경우 여수박람회 유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국의 강력한 맞수인 모로코가 우호국을 중심으로 BIE 회원국을 늘리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회원국에 가입한다면 우리로서는 확실한 원군을 얻을 수 있

다. 또 2012 여수박람회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지구온난화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엑스포를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메신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유치 명분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시민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BIE가입과 박람회 유치 공동노력이 거론될 수만 있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회담 소식이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문광부, 2006 관광동향 보고서

지난해 남북을 왕래한 사람은 68만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관광부가 작성한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왕래자 총 인원수는 68만8천6명으로 2005년 82만2천173명보다 13만4천167명(16.3%)이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 남북 왕래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10월 북한 핵실험 등 불안정한 남북 정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남북 왕래자 가운데 남북한 주민이 전체의 99.1%인 68만2천명인 반면에 외국인인 5천510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남측 주민은 34만1

천616명으로 이를 방북 목적별로 보면 금강산 관광 등 관광·시찰 목적이 전체의 60.2%인 21만5천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성공단 출퇴근 등 상용 목적이 5만5천639명, 단순 방문이 1만5천225명, 공무원행 750명, 회의 참석 344명 순이었다.

남측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96명으로 대부분 회담 참석자였다.

남북 왕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1만2천595명, 여성이 12만9천21명이며 이 가운데 9만9천942명에 달하는 여성이 관광·시찰에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이은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북간 교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귀하의 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

컴퓨터

훈련과정	훈련내용	훈련시간
컴퓨터활용실무	윈도우XP, 워드, 인터넷 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월 수 금 19:10~21:00
CAD	2D, 3D, A/C 지형중과점 건축제도, 기계제도	월 수 금 19:00~21:00
MOS(Master)	MS Office 응용프로그램	월 수 금 19:00~21:00
정보통신실비	기사(산업기사) 자격증과정 네트워크과정	월 수 금 19:00~21:00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자격증과정 프로그래밍과정	월 수 금 17:00~21:00
정보화기초1	윈도우XP, 워드, 인터넷	화목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월 수 금 19:00~21:00

부동산실무

훈련과정	훈련내용	훈련시간
공인중개사	제19회시험(2008년 시행)	주말반 이강민 주달민
주택관리사	제11회시험(2008년 시행) 대비반	

6개월과정 합격보장 특별반 접수중!!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 재직자 또는 일반인

※ 훈련수료후 개인별 환급(노동부)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열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세무공무원 1800여명 올해반기 내내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수직	토목직	검정직	물리화
-----	-----	-----	-----	-----	-----	-----	-----	-----	-----	-----	-----	-----	-----	-----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 10월 1일 주·야 (휴일)반모집 (현재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1!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개강 10월 1일

사정애착장수중

개강특: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토목직, 전산직, 특수직, 토목직, 검정직, 물리화

공무원 이분반 2개월 2주수료 (10/1~10/21) (10/21~10/28)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2주수료 (10/21~10/28)

세무직 단특반 이분반(2개월 완성) 문제풀이 (1개월 완성)

기술직 단특반 일반직/보통직/신용직/상용직/직선직/보통직

한빛공무원학원

www.hanhitgosi.co.kr

전남세 후문 북구명 건넌편 ☎234-0234

로템갤러리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찾아오시는 길

1기북면 방광주 - 북문동 - 삼성대교교차로 - 로템갤러리

특별기획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 (062) 653-4022

물류센터 :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